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8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강명수 정보통신정책과장(02-2110-4801), 박중수 사무관(4796)	

7월 IT수출 131.2억불, 64.4억불 흑자로 5개월 연속 130억불帶 수출 및 60억불帶 흑자 지속

- IT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일)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단가하락으로 감소세 전환
- 스마트폰은 세계1위 등극(2분기부터), 시스템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증가로 수출 호조세

지식경제부는 7월 IT수출이 131.2억 달러, 수지는 64.4억 달러 흑자로 5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 및 60억 달러帶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기준 IT수출은 조업일수 감소(△1일, '11.7월 일평균 수출액: 5.6억 달러)와 메모리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3.2% 감소하여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스템반도체 등 융합 핵심품목의 수출 호조로 일평균 수출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 일평균 IT 수출 증가율(%) : ('11.1) 11.3 → (2) 12.9 → (3) 6.0 → (4) 7.8 → (5) 2.1→ (6) 6.1 → (7) 0.9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7월P		2011년 1~7월P		2010년 7월		2010년 1~7월	
수 출	전체산업	514.5	(27.3)	3,262.7	(24.7)	404.2	(26.7)	2,617.5	(33.1)
	IT산업	**131.2**	**(△3.2)**	**904.8**	**(4.8)**	**135.5**	**(24.7)**	**863.6**	**(36.0)**
수 입	전체산업	442.2	(24.8)	3,023.0	(26.4)	354.2	(28.0)	2,392.1	(38.2)
	IT산업	**66.8**	**(1.8)**	**472.7**	**(12.9)**	**65.7**	**(13.8)**	**418.5**	**(23.6)**
수 지	전체산업	72.2		239.7		50.0		225.4	
	IT산업	**64.4**		**432.2**		**69.9**		**445.1**	

품목별로는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TV, 태블릿PC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휴대폰(21.8억 달러, 15.1%↑)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와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11년 2분기부터 우리나라(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은 23.1%로 갤럭시S, 옵티머스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과 1년 만에 '세계 1위'에 진입하였다.

※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 : ('10.2Q) 6.4, 5위 →(3Q) 10.6, 4위 → ('11.1Q) 16.2, 3위→ (2Q) 23.1, 1위

< 휴대폰 수출 추이(억 불, %) >

구분		2008	2010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적
휴대폰	수출	334.4	248.9	23.8	19.8	21.7	23.2	24.4	22.2	**21.8**	**156.7**
	(증감률)	(19.1)	(-13.2)	(11.9)	(5.6)	(5.8)	(31.7)	(38.9)	(17.9)	**(15.1)**	**(17.6)**
스마트폰	수출	21.1	68.4	9.5	9.2	8.2	12.2	12.5	10.0	**7.5**	**69.1**
	(증감률)	-	(231.5)	(452.8)	(396.5)	(260.0)	(517.7)	(323.9)	(98.8)	**(39.6)**	**(226.1)**

TV(8.6억 달러, 22.2%↑) 수출은 3D TV,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과 TV부분품(7.4억 달러, 21.6%↑)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하였고, 태블릿PC는 1.7억 달러 수출로 전월대비 17.5%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는 단가 급락으로 인해 수출 감소가 지속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25.2억 달러, △21.2%) 수출은 Full HD TV, 모니터 등 전방 산업의 판매 부진과 단가 하락으로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반도체(40.4억 달러,△12.4%)는 메모리(18.2억 달러, △31.1%)는 단가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15.9억 달러, 12.9%↑)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 D램 단가($) : ('10.1) 2.4 → (6) 2.7 → (12) 1.0 → ('11.1) 0.9 → (7) 0.8
※ TV용 LCD 단가($) : ('10.1) 387.5 → (6) 367.5 → (12) 297.5 → ('11.1) 279 → (7) 258

< 반도체 수출 추이(억 불, %) >

구분		2008	2010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누적
반도체	수출	327.9	507.1	40.9	36.5	44.7	41.6	41.7	42.1	**40.4**	**287.9**
	(증감률)	(-16.0)	(63.4)	(23.9)	(9.2)	(10.6)	(-0.5)	(-4.9)	(-3.9)	**(-12.4)**	**(1.9)**
메모리	수출	170.3	284.7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47.7**
	(증감률)	(-24.0)	(79.4)	(11.3)	(-2.8)	(2.6)	(-9.6)	(-15.3)	(-15.8)	**(-31.1)**	**(-9.9)**
시스템 반도체	수출	131.3	160.9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00.2**
	(증감률)	(-7.4)	(30.9)	(36.9)	(16.4)	(22.2)	(11.5)	(10.8)	(14.8)	**(12.9)**	**(17.3)**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IT수출국가인 중국(홍콩포함, 64.4억 달러, 3.3%↑)과 일본(7.5억 달러, 1.2%↑), 중남미(7.9억 달러, 1.7%↑), 대양주(0.9억 달러, 22.2%↑)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13.2억 달러, △21.1%), EU(11.4억 달러, △25.6%) 수출은 감소하였다.

'11년 7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0.4	(△12.4)	25.2	(△21.2)	21.8	(15.1)	131.2	(△3.2)
중국(홍콩포함)	22.5	(△8.8)	19.4	(△2.3)	6.4	(51.2)	64.4	(3.3)
미국	2.2	(△34.6)	0.2	(△50.5)	5.9	(△26.5)	13.2	(△21.1)
일본	2.8	(△22.0)	0.3	(△74.2)	1.7	(245.6)	7.5	(1.2)
EU	1.8	(△47.0)	2.7	(△44.6)	1.9	(△11.5)	11.4	(△25.6)

한편, IT수입은 가정용기기와 네트워크 장비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한 6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대 수입 품목인 전자부품(39.8억 달러, △0.8%) 수입은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7.7억 달러, 3.1%↑), 휴대폰(2.8억 달러, 0.8%↑)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냉장고, 에어컨 등 계절상품 수입 증가로 가정용기기는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네트워크 장비(1.9억 달러)도 14.1% 증가하였다.

최근 IT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다소 정체되고 있지만, D램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글로벌 업황은 하반기 성수기 도래와 맞물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Gartner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D램의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는 3분기 이후로, 가격 회복 시기는 4분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도 3D LCD 패널, OLE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 D램 공급과잉률(%, Gartner) : ('10.4Q) 103→ ('11.1Q) 102→(2Q) 100.3 →(3Q) 97.8 → (4Q) 98.1

최근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D램과 LCD 패널 단가가 원가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서 수출 둔화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대만, 일본 등 경쟁 업체는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내 업체와의 세계시장점유율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하반기의 전통적인 IT제품 성수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IT수출은 1,600억 달러 대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종전에는 '10년 1,539억 달러가 최대치).

<붙임. 세부자료>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 5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 38

3. 수입 및 수지 동향 ····· 41

4. 2011년 7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3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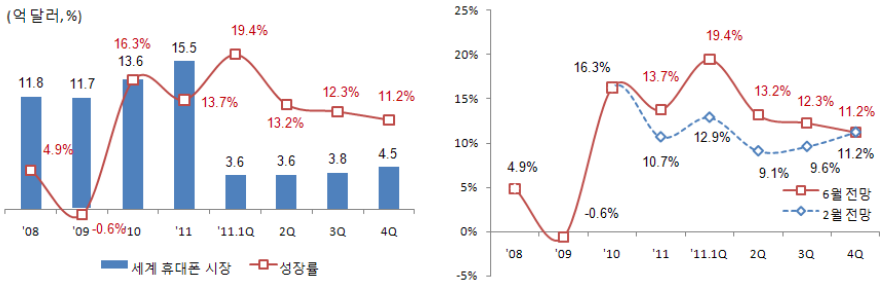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13.7%로 성장 예상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SA, 2011.6, 출하량 기준) : 15.5억 대, 13.7%

○ SA는 스마트폰과 저가폰 시장 성장세를 반영하여,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은 기존 9.6%에서 12.3%로 상향

※ 휴대폰 시장 세부 품목별 성장률 전망(SA, 2011.4, 출하량 기준)
: (저가폰) 10.3%, (피처폰) -1.6%, (스마트폰) 45.3%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비교 (기존vs 최근)**



자료 : SA, 2011.6. 2011.2.

▶ '11. 2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은 일본 지진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11년 6월 전망치인 13.2%를 하회하는 12.8% 성장(3.6억 대)한 것으로 추산

○ 2분기 휴대폰 시장은 일지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요와 신흥 시장 성장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

○ 특히, Apple의 부상과 노키아의 몰락, 그리고 중화권 업체의 부상 등 세계 휴대폰 산업 경쟁 구도 변화가 심화

▶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은 안정적인 스마트폰 구현과 차별화된 제품 스펙을 바탕으로 전략 모델이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1위에 진입

○ '11년 2분기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은 스마트폰 시장 입지 강화에 힘입어 28% 대를 회복할 것으로 추산

주요 업체별 출하량 및 세계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대, %)

스마트폰		'11.1Q 출하량	'11.1Q (증감률)	'11.2Q 출하량	'11.2Q (증감률)	휴대폰 전체		'11.1Q 출하량	'11.1Q (증감률)	'11.2Q 출하량	'11.2Q (증감률)
1	Apple	18.6	(111.4)	20.3	(141.7)	1	Nokia	108.5	(0.6)	88.5	(-20.3)
2	삼성전자	12.6	(366.7)	19.2	(519.4)	2	삼성전자	68.9	(7.2)	74.0	(16.0)
3	Nokia	24.2	(12.6)	16.7	(-29.8)	3	LG 전자	24.5	(-9.6)	24.8	(-19.0)
4	RIM	13.8	(30.2)	12.5	(11.6)	4	Apple	18.6	(111.4)	20.3	(141.7)
5	HTC	9.6	(220.0)	12.1	(132.7)	5	ZTE	15.2	(76.7)	18.0	(71.4)
6	LG전자	4.1	(1266.7)	6.2	(588.9)	6	RIM	13.8	(30.2)	12.5	(11.6)
국내 업체		16.7	(456.7)	25.4	(535.0)	국내 업체		95.7	(2.4)	101.1	(4.6)
세계시장점유율		16.2	3위	23.1	1위	세계시장점유율		26.9	2위	28.0	2위
전체		103.0	(85.9)	110.0	(76.3)	전체		356.4	(19.4)	361.1	(12.8)

자료 : SA 2011.7,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추정치)의 점유율 합산

▶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는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

○ SA의 주요 휴대폰 업체 매출 전망자료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는 휴대폰 매출 기준으로 노키아를 누르고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되며, LG전자도 4위 RIM과의 격차를 줄이며 매출 확대 추세를 이어갈 전망

휴대폰 Top 5 업체 매출(휴대폰 부문) 전망

(단위 : 억 달러)

	'09	'10	'11	'11.1Q	2Qe	3Qe	4Qe	비고
Nokia	372.5	389.2	351.4	94.0	80.2	79.6	97.6	2분기 이후 3위
삼성전자	310.0	340.8	385.7	85.5	85.1	104.0	111.2	2분기 이후 2위
Apple	148.5	290.7	481.9	118.7	97.2	125.8	140.3	1분기 이후 1위
RIM	118.8	149.5	168.5	41.7	39.2	40.6	47.1	4위
LG전자	152.4	114.4	114.5	25.5	27.6	27.5	33.8	5위

자료 : SA, 2011.6.

주) 1위 2위 3위 4위 5위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 증가는 휴대폰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

○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해외 생산 비중은 최근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확대로 둔화세에 접어들었으나,

○ 스마트폰 단가 경쟁 심화와 국내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대응 강화로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은 '11.2분기 이후 다시 확대 추세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 ('08) 45 → ('09) 58.2 → ('10) 64.2→ ('11.1Q) 63.1→ (2Q) 72.2

3) 수출 동향

▶ 7월 휴대폰 수출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와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 기록

○ 피처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2.8% 감소했으나, 스마트폰은 39.6%, 부분품은 41.6%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을 주도

▶ (지역별)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은 신규 스마트폰 발매를 앞두고 있어 전년 동월대비 26.5% 감소한 5.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6.4억 달러, 51.2%↑)을 비롯한 일본(1.7억 달러, 245.6%↑), 중남미(2.1억 달러, 67.9%↑) 수출은 크게 증가

○ 반면, EU(1.9억 달러, △11.5%), 동유럽(0.4억 달러, △24.6%) 수출은 감소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휴대폰 (부분품 포함)	18.9 (△27.7)	18.8 (△17.6)	21.1 (△16.1)	26.5 (2.9)	26.8 (8.9)	22.4 (21.7)	23.8 (11.9)	19.8 (5.6)	21.7 (5.8)	23.2 (31.7)	24.4 (38.9)	22.2 (17.9)	21.8 (15.1)
스마트폰	5.4 (376.0)	6.2 (378.1)	8.3 (560.0)	10.8 (268.1)	11.8 (240.5)	10.2 (349.2)	9.5 (452.8)	9.2 (396.5)	8.2 (260.0)	12.2 (517.7)	12.5 (323.9)	10.0 (98.8)	7.5 (39.6)
피처폰	5.8 (△60.8)	4.7 (△59.6)	4.3 (△66.7)	7.0 (△45.0)	6.7 (△45.3)	5.1 (△40.2)	4.9 (△47.4)	3.9 (△56.8)	4.3 (△57.0)	3.2 (△63.7)	3.7 (△45.8)	3.6 (△48.6)	3.3 (△42.8)
부분품	7.7 (△24.7)	7.8 (△20.5)	8.5 (△22.4)	8.8 (△13.9)	8.4 (△6.5)	7.1 (△6.7)	9.4 (△7.8)	6.7 (△14.7)	9.1 (11.7)	7.8 (13.2)	8.2 (5.7)	8.6 (26.1)	10.9 (41.6)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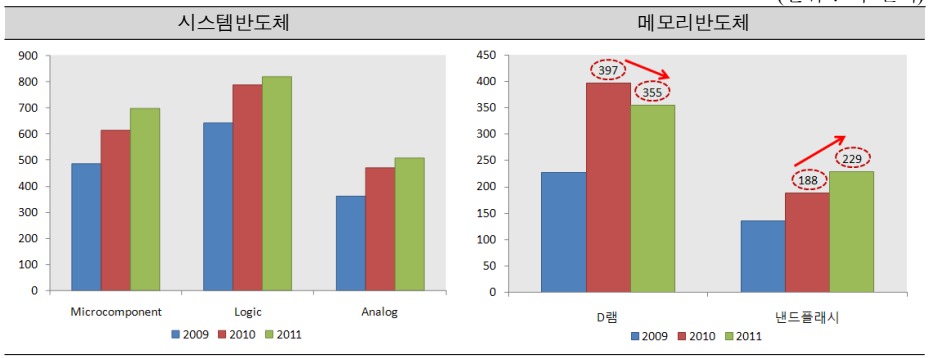
▶ '1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기저효과('10년 32.2%↑)와 글로벌 경기 불안과 PC 등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대비 7.2% 성장에 그칠 전망(iSuppli, 2011.6)

○ 시스템반도체는 8.2%에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국내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0.4%의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

※'11년 종류별 성장률(iSuppli, %) : (Microcomponent) 13.7, (Logic) 3.9, (Analog) 8.0 (D램) △10.6, (낸드) 21.7

반도체 종류별 시장 전망

(단위 : 억 달러)



자료 : iSuppli, 2011.5.

▶ 우리나라의 '11.1Q D램 세계시장점유율은 약 61.7%로 3분기 연속 60%를 상회

○ 삼성전자는 39.1%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으며, 하이닉스는 전분기보다 상승한 22.5%의 점유율을 기록

○ 계절적 비수기와 D램 가격 하락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2분기 매출 9조 1,600억 원, 영업이익 1조 7,900억 원을 기록하고, 하이닉스는 매출 2조 7,580억 원, 영업이익 4,470억 원의 실적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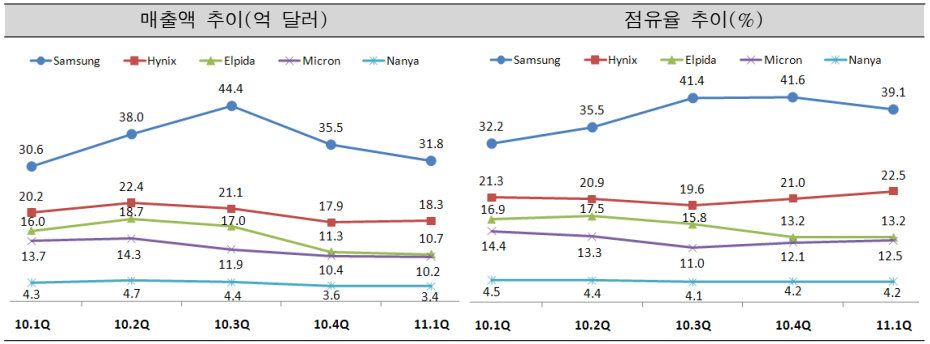
▶ 반도체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후발 반도체업체의 감산가능성 현실화

○ 대만 업체인 난야(-56.5%), 이노테라(-34.3%), 파워칩(-33.7%) 등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감산압력에 직면

※ 난야와 이노테라는 '10.1Q 이후 6분기 연속 적자, 파워칩은 '10.4Q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 난야는 50나노 제품 비중이 50% 이상인 데다 PC용 D램 비중이 70%에 육박해 제일 먼저 감산할 가능성이 높음

D램 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추이



자료 : Gartner, 2011. 7.

▶ 낸드플래시도 11.2Q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다시 확대

○ DRAMeXchange에 발표에 따르면 '11.2Q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19.6억 달러로 40.1%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도시바(13.6억 달러, 27.8%), 하이닉스(6.4억 달러, 13.1%), 마이크론(5.5억 달러, 11.3%), 인텔(3.8억 달러, 7.7%) 등이 2~5위를 차지

※ 하이닉스는 미세공정을 전환을 통한 출하량 확대를 통해 '10.1Q이후 마이크론에 빼앗겼던 3위 자리에 복귀

○ '11.1Q 삼성전자(36.2%)와 도시바(35.1%) 점유율은 1.1%p 차에 불과했으나 2Q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PC 업체 내장형 OEM 제품 출하량을 늘리며 선전한 반면, 일본 도시바는 지진 영향으로 제품 출하량이 감소

▶ 메모리반도체 시장 부진은 반도체업계의 공정기술 개발 경쟁으로 연결

○ 과거 가격 하락 시기에 증산을 통한 치킨게임 양상이었다면 지금은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낮추기로 경쟁 양상이 변화

○ 업계는 세밀한 공정 개발이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경쟁업체보다 앞선 공정기술 개발에 박차

※ 하반기 D램 미세공정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이 크게 늘어 올해 내내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메모리 업체별 공전 전환 시기



자료 : 서울경제, 2011. 7.

▶ 세계 경제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반도체 부진을 잘 활용할 경우 국내 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

○ 경기하강으로 줄어든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업체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신기술 개발, 불량률 감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상승기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전망

○ 반도체시장이 부진할 경우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퇴출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반도체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출 여건

▶ 7월 D램과 낸드플래시 단가는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7월 평균 D램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68.9%, 전월대비 16.3% 하락한 0.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1.2월의 0.88달러 최저치를 5개월 만에 재경신

- D램 가격 하락은 북미·유럽지역에서의 PC 판매 부진과 이에 따른 재고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대만 업체 등 하위 업체의 감산이 임박함에 따라 '11.4Q를 전후해 가격 안정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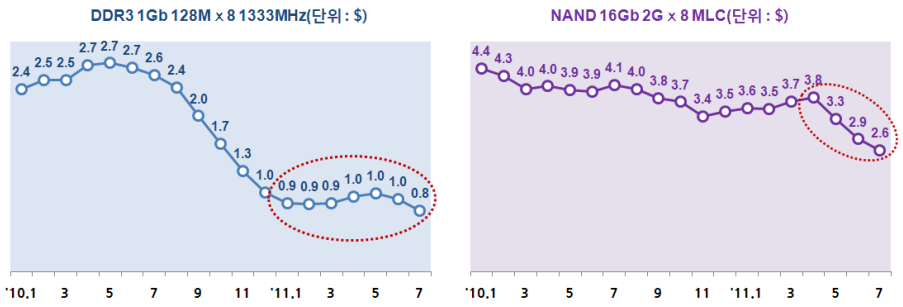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7월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5.0%, 전월대비 약 8.4% 하락한 2.6달러를 기록, '11.4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 시현

- 낸드플래시의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지면서 제조사들의 재고량이 늘어난 것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 삼성전자·하이닉스·도시바 등 주요 낸드플래시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생산량 확대와 신규 팹 가동에 나서면서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지만 스마트폰·태블릿PC, SSD 채용 노트북 등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둬 수급 균형을 이룰 전망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D램	낸드플래시



주) 낸드플래시 6, 7월 가격은 Spot Price 평균임

자료 : DRAMeXchange, 2011.8.

▶ 국내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모바일 D램 시장에 엘피다 가세

○ 엘피다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용 D램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엘피다는 최근 797억 엔(한화 약 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 5727만 주의 신주를 발행, 522억 엔을 조달하고 275억 엔은 CB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

○ PC시장 수요 회복 지연으로 D램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존하는 데다 일본 엘피다의 모바일 D램 사업 투자 강화로 모바일 D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글로벌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위축, 단가하락과 환율 불안 등 어려운 마케팅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대응할 전망

하반기 국내 업체의 반도체 시장 대응 전략

업체	하반기 대응 전략
SAMSUNG	○ 메모리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에 미세공정 전환을 가속화해 업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 시스템LSI 사업에서 고성능 모바일기기 수요 호조에 따라 듀얼코어 AP와 이미지센서 등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신규 거래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 ※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반도체 5조 8,000억 원, 시스템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을 합해 총 10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
hynix	○ '11.1Q 생산을 시작한 30나노급 D램 제품 비중을 연말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2분기 말 기준 70% 수준인 모바일·그래픽·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도 계속 유지 ○ 낸드플래시 공정전환을 가속화해 2분기 말 현재 50% 수준인 20나노급 비중을 연말까지 70% 중반까지 확대하고, 차세대 20나노 제품도 하반기 양산을 시작

자료 : NIPA, 언론사 보도 재가공, 2011.8.1

3) 수출 동향

▶ 7월 반도체 수출은 시스템반도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2.4% 감소한 40.4억 달러를 기록

○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램(10.1억 달러, △43.3%) 수출은 PC 수요부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10.12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낸드플래시(2.6억 달러, 8.4% 증가)는 최근 단가하락으로 성장률이 정체되었으나 성장 기조는 지속

○ 한편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AP, 고화소 이미지 센서 등의 수출확대로 전년 동월대비 12.9% 증가한 15.9억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

※ 하반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Apple(9월 아이폰 신모델을, 10~11월 아이패드 신모델을 출시할 예정) 등 주요 수요처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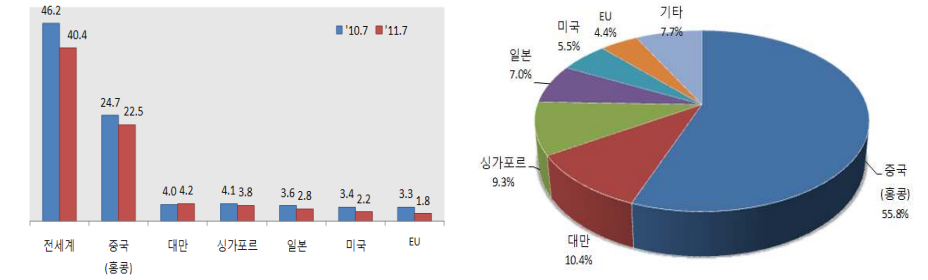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반도체	46.2	47.4	47.7	45.6	41.3	42.5	40.9	36.5	44.7	41.6	41.7	42.1	40.4
	(70.8)	(64.9)	(48.6)	(32.8)	(18.1)	(23.5)	(23.9)	(9.2)	(10.6)	(△0.5)	(△4.9)	(△3.9)	(△12.4)
메모리	26.4	27.9	26.6	24.5	20.3	21.4	21.8	18.8	23.4	22.2	22.1	21.3	18.2
	(98.5)	(90.4)	(65.8)	(37.6)	(4.4)	(7.2)	(11.3)	(△2.8)	(2.6)	(△9.6)	(△15.3)	(△15.8)	(△31.1)
D램	17.8	18.8	17.5	16.4	12.7	12.6	11.5	11.0	12.8	12.5	12.5	12.2	10.1
	(119.)	(116.9)	(86.9)	(56.1)	(2.9)	(△8.9)	(△16.2)	(△14.7)	(△14.8)	(△22.2)	(△28.7)	(△27.0)	(△43.3)
낸드	2.4	2.5	2.2	2.1	2.2	2.5	2.5	2.2	2.7	2.9	3.2	2.4	2.6
	(53.7)	(26.9)	(4.3)	(△8.9)	(11.0)	(39.9)	(20.8)	(8.3)	(10.9)	(13.9)	(34.7)	(1.1)	(8.4)
시스템반도체	14.1	14.2	15.3	15.1	15.6	15.4	13.8	12.2	15.1	13.7	14.3	15.2	15.9
	(24.3)	(23.6)	(18.4)	(15.1)	(25.9)	(38.5)	(36.9)	(16.4)	(22.2)	(11.5)	(10.8)	(14.8)	(12.9)

▶ (지역별)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對중국(홍콩포함) 수출은 시스템반도체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반도체 부진으로 '11.4월 이후 수출 부진 지속

○ 대만(4.2억 달러, 5.5%)을 제외한 중국(홍콩포함, 22.5억 달러, △8.8%), 싱가포르(3.8억 달러, △7.2%), 미국(2.2억 달러, △34.6%), 일본(2.8억 달러, △22.0%), EU(1.8억 달러, △47.0%)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모두 부진

반도체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및 비중('11.7월)



자료 : NIPA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계절적 비수기, 선진 시장 경기 회복 둔화, 공급 과잉 등 시장 회복에 부정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여전

○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 대비 세트 업체들의 패널 재고 축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재고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실적 개선에 부정적

- 디스플레이 선두 그룹인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LED TV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태블릿PC 패널 등 신제품 적용 패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미국, 유럽 등 선진 TV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디스플레이 시장 및 업계 실적 개선이 다소 더디게 진행 중
- 이로 인하여 '11년 2분기 주요 업체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3%~23.7% 감소하였으며 적자 기록

※ 다만, 국내 업체들의 매출 감소폭은 대만 주요 업체(CMI, AUO)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 시장도 성장 주춤

- 중국 TV 제조업은 노동절 판매 호조 이후 패널 재고 비축량을 증가시켰으나 국경절(6월) 수요 부진 등으로 세트업체의 패널 구매 감소(DisplayBank, '11.7.25)

※ 중국 6대 TV 제조업체들의 패널 구매 증가율(%) : −40('11.1) → −15(2) → 71(3) → 6(4) → 23(5) → −5(6)

▶ 대만-일본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국내 업체 견제 가속화

○ TV 패널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된 일본 업체들은 대형 LCD 패널 및 중소형 패널에서 시장 지위 회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만 업체들과 협력 강화

- Sharp(日)는 CMI(臺)와의 공동 부품 조달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Foxconn(臺)과 합작사 설립 계약을 최종 합의('11.7.18)
- 이러한 일본 업체와 대만 업체들의 관계 강화 움직임은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분기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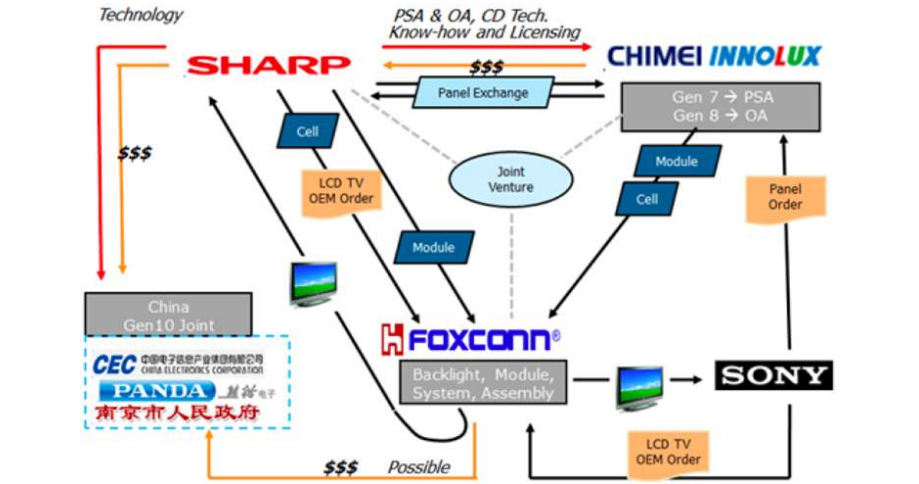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대만 백억 달러, %)

구 분		2011		2010			
		1Q	2Q	1Q	2Q	3Q	4Q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	6.5	7.1	6.9	7.8	8.1	7.2
	증감률	−5.0	−8.6	40.4	31.3	4.4	−1.2
	영업이익	−0.2	−0.2	0.5	0.9	0.5	0.1
	이익률	−3.5	−3.0	7.2	11.3	6.4	1.4
LG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액	5.4	6.0	5.9	6.5	6.7	6.5
	증감률	−8.7	−6.3	65.9	35.2	15.1	9.8
	영업이익	−0.2	−0.05	0.8	0.7	0.2	−0.4
	이익률	−4.5	−0.8	13.4	11.2	2.7	−6.0
AUO (전체)	매출액	9.3	9.8	11.2	12.9	12.4	10.3
	증감률	−16.4	−23.7	121.1	55.9	11.8	−10.7
	영업이익	−1.4	−0.1	0.8	1.3	0.0	−1.1
	이익률	−15.3	−0.9	7.3	10.3	0.2	−10.8
Chimei−Innolux (전체)	매출액	12.6	12.2	6.9	14.8	13.9	13.0
	증감률	83.1	−17.9	127.0	271.1	191.6	179.9
	영업이익	−1.3	−	0.4	1.2	−0.3	−1.8
	이익률	−10.5	−	6.1	8.1	−2.3	−13.6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CMI(Chimei-Innolux)는 '11년 2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월별 실적 합계

자료 : 각사 IR자료

Sharp-CMI-Foxconn의 협력 체계 강화 시나리오



자료 : DisplaySearch, 2011.5.3

2) 수출 여건

▶ 중국의 3D 시장 활성화, LED 패널 비중 확대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긍정적

○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심의 3D 시장 활성화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 중국 시장조사기관 AVC(All View Consulting)에 따르면, 올해 초 1~2%에 불과했던 3D TV 시장 비중은 최근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

※ 중국 시장 내 3D 비중(%) : 2.3('11.1) → 1.7(2) → 4.1(3) → 6.9(4) → 9.4(5) → 10.3(6) → 11.1(7)

-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가 경기가 회복 중인 북미 시장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LED 패널 비중의 확대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긍정적

- '11년 2분기 LCD TV 패널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LED 패널의 수요 확대는 경쟁우위가 있는 국내 업체에게 긍정적 영향

※ LCD 패널 중 LED 비중(%) : 24.9('10.1Q) → 36.9(2Q) → 44.2(3Q) → 45.6(4Q) → 51.3('11.1Q)

- 세트 업체들의 보수적 재고 운영으로 증가폭의 축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LED 패널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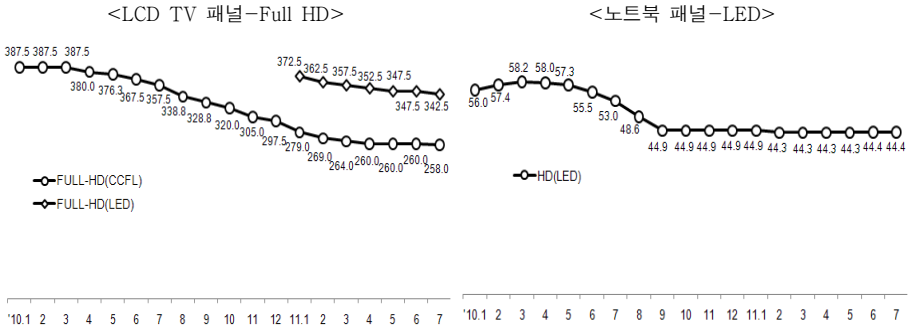
○ '11년 6월 보합세를 보였던 LCD TV 패널 가격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7월 재하락

- 다만, 태블릿PC 등 신규 시장 확대 등으로 노트북 패널 가격 등은 보합세 유지

○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감산, 투자 축소 등의 수급 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노력 중

- LG디스플레이, CMI(臺) 등은 가동률 조정과 더불어 '11년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20~30% 감소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급과잉 완화 중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7

3) 수출 동향

▶ 7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보수적 재고 정책,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21.2% 감소한 25.2억 달러 기록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유럽, 남미 등 주요 수출 시장 수출도 동반 감소

○ 3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던 중국(홍콩포함)은 재고 부담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한 19.4억 달러 기록

- 선진 수요 시장인 EU(2.7억 달러, △44.6%)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 동유럽(2.3억 달러, △48.8%), 북미 지역 생산 거점 남미(1.3억 달러, △57.9%) 수출 감소

※ 다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월대비 유럽(25.3%↑), 동유럽(17.1%↑)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패널	31.9	31.9	28.6	28.9	27.3	26.5	25.6	22.6	27.0	26.3	27.1	26.4	25.2
(증감률)	(27.5)	(25.2)	(8.9)	(8.7)	(9.5)	(0.8)	(4.0)	(△3.3)	(△4.9)	(△7.3)	(△6.8)	(△8.3)	(△21.2)

4 TV

1) 시장 환경

▶ 일본, 아날로그 방송 종료

○ 일본이 7월 24일 정오를 기점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완전 전환

- 다만,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3개 현에서는 2012년 3월 말까지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을 병행

○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디지털 평판TV에 대한 주문이 몰리면서 6~7월의 판매 대수가 7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6월 평판TV 판매 대수는 약 283만 대로 금년 상반기 판매 대수(1,137만 대)의 약 25%를 차지

- 디지털 전환 특수 외에 업체 간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연초 대비 30%↓)도 최근 수요 확대에 기여

○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으로써 향후 일본 시장은 디지털 전환 특수 소멸로 인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

일본 평판TV 내수 추이

(단위 : 만 대,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누계
평판 TV	143.9 (129.4)	162.2 (116.6)	215.3 (97.1)	171.9 (124.4)	161.1 (128.1)	282.6 (174.2)	1,137.1 (126.6)

자료 : http://www.jeita.or.jp

▶ Apple, 다계층 디스플레이 디바이스(Multilayer Display Device) 특허출원

○ 공개된(http://www.freepatentsonline.com) 문서에 따르면, Apple이 특허출원한 디스플레이는 투명한 여러 계층의 스크린으로 구성되며, 각 계층은 별도의 그래픽 프로

세서로 이미지를 표현하여 결과적으로 3D 전용 안경 없이도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3D 이미지 표시 가능

○ 특허출원 문서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에서의 3D 활용을 다루고 있지만 스마트폰에의 응용은 물론 Apple이 클라우드 기반의 Apple 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몇 년 후 무안경 3D TV 출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

2) 수출 여건

▶ 삼성전자·LG전자 TV부문 2분기 실적 발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선전

○ 삼성전자 TV 부문 2분기 실적 발표, 전분기 대비 한자리 중반대, 전년 동기대비 한자리 후반대 성장 유지

- 1분기 TV 출하 실적은 986만 대(평판TV 887만 대)이므로 2분기 실적은 1,035~1,045대, 상반기 실적은 2,021~2,031만 대 사이로 추정

※ 지역별로는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 등 신흥 시장이 20%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

※ 전략적 신모델 및 LED TV 등 프리미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 수익성 개선

○ LG전자 TV 부문 2분기 실적 발표, 평판TV 판매량이 2분기 사상 최대인 680만대,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1,360만 대를 기록

- 1분기 평판TV 출하 실적은 676만 대로 평판TV 판매량은 비슷했지만 시네마 3D·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군 판매 호조로 전분기 대비 2.7% 매출 상승

※ 신흥시장에서 평판TV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3D TV·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향후 시네마 3D TV와 스마트 TV 등 하이엔드급 제품 대응을 강화해 매출 증대와 수익성 확보에 나설 계획

▶ 국내 업체들 3D TV 품질 공식 인증

○ 삼성전자 3D 스마트 TV, 3D 평가 전 항목에서 TUV 인증 취득

- 삼성전자는 독일 소재 글로벌 인증 서비스 기관인 TUV Rheinland로부터 업계 최초로 Full HD 3D 구현과 함께 3D 시청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

○ LG전자 시네마 3D TV, 독일 VDE로부터 Full HD 인증 획득

- LG전자는 독일 전기기술자협회(VDE)로부터 FPR 방식 시네마 3D TV에 대해 3D 화질에 대한 Full HD 인증 획득

▶ 3D TV, 기술 우위 논란 속에 방식간 가격 차이 확대

○ iSuppli에 따르면, 편광방식의 가격 하락으로 기술방식간 가격차이 확대

- 2011년 5월: SG(Shutter Glass) 3D TV 판매가격은 편광식 3D TV보다 평균 7% 고가

- 2011년 6월: SG 방식 제품과 편광식 제품간 가격 차이는 40~49인치에서 9%, 특히 50인치 이상 대형 3D TV에서는 14%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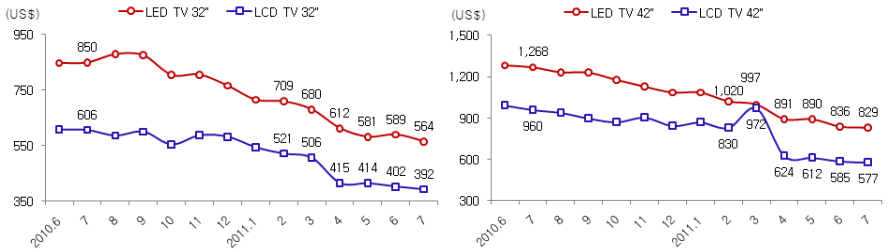
- iSuppli는 이 같은 가격차이 확대가 편광식 3D TV 가격(40~49인치 3%, 50인치 이상 8%)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한편, 시간이 갈수록 TV의 전년 동기대비 가격 하락폭이 점차 확대

※ LCD TV ('11.1. → '11.7): 32" (△14.1% → △35.3%), 42" (△13.4% → △39.9%)

※ LED TV ('11.1. → '11.7): 32" (△25.0% → △33.6%), 42" (△12.6% → △34.6%)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1.6.

3) 수출 동향

▶ 7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2.2% 증가한 8.6억 달러로 집계

○ 프리미엄 제품의 높은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월 TV 수출의 87%(약 7.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품 수출 또한 21% 이상 증가하며 전체 TV 수출 증가

○ 최대 수출 지역인 중남미 지역은 물론 중국, EU 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 3개월간의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에서 성장세로 반전

※ 對중국 수출 추이(백만 달러) : ('11.5월) 67 → (6월) 70 → (7월) 117

※ 對EU 수출 추이(백만 달러) : ('11.5월) 73 → (6월) 74 → (7월) 171

▶ (지역별) 대양주(75.8%↑), 중국(52.7%↑), 중동(50.1%↑), 남미(43.7%↑), 아프리카(16.3%↑), 일본(2.1%↑)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미국(△12.7%), 아세안(△12.5%), 동유럽(△6.5%), 인도(△3.3%), EU(△3.1%) 등에의 수출은 감소

○ 지난 3개월간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미국, EU,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률 하락세가 크게 완화

※ 對미국 수출 성장률: ('11.4월) △54.2% → (5월) △45.5% → (6월) △49.0% → (7월) △12.7%

※ 對EU 수출 성장률: ('11.4월) △36.1% → (5월) △49.6% → (6월) △48.2% → (7월) △3.1%

※ 對동유럽 수출 성장률: ('11.4월) △41.9% → 5월 △47.7% → (6월) △37.5% → (7월) △6.5%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칼라TV (부분품 포함)	7.0 (55.8)	7.0 (57.6)	6.6 (22.1)	6.2 (26.9)	5.6 (21.8)	5.2 (3.0)	6.4 (18.9)	5.9 (16.0)	7.1 (11.2)	6.3 (△8.6)	6.0 (△8.4)	6.4 (△2.0)	8.6 (22.2)
LCD TV	0.6 (24.9)	0.5 (46.4)	0.6 (9.8)	0.6 (△11.7)	0.6 (△7.0)	0.5 (△16.3)	0.5 (4.4)	0.5 (46.5)	0.6 (39.5)	0.7 (33.3)	0.7 (25.7)	0.8 (11.8)	0.9 (48.6)
PDP TV	0.3 (8.5)	0.3 (14.0)	0.3 (7.5)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0.2 (△18.6)
TV 부분품	6.1 (64.1)	6.1 (63.2)	5.7 (25.5)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2.9)	6.2 (8.6)	5.3 (△13.0)	5.0 (△11.2)	5.3 (△3.2)	7.4 (21.6)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 '11년 2분기 전 세계 PC 시장은 지난 1분기의 감소세를 극복하였으나, 태블릿PC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망치보다 낮은 2.3% 성장에 머무름

○ (대수 기준) Gartner에 따르면 '11년 2분기 글로벌 PC 시장은 8,892만 대 출하, 전년 동기대비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잠정 집계 결과 8,520만대 출하, 2.3% 성장

- Desktop PC는 약 3,440~3,480만 대, Mobile PC는 약 5,040~5,080만 대 출하 추산

※ Desktop PC 증가율(대수기준, %) : ('10.2Q) 9.5 → (3Q) 4.0 → (4Q) 0.4 → ('11.1Q) △2.9 → (2Q) 0.4

※ Mobile PC 증가율(대수기준, %) : ('10.2Q) 32.2 → (3Q) 11.8 → (4Q) 5.0 → ('11.1Q) △0.3 → (2Q)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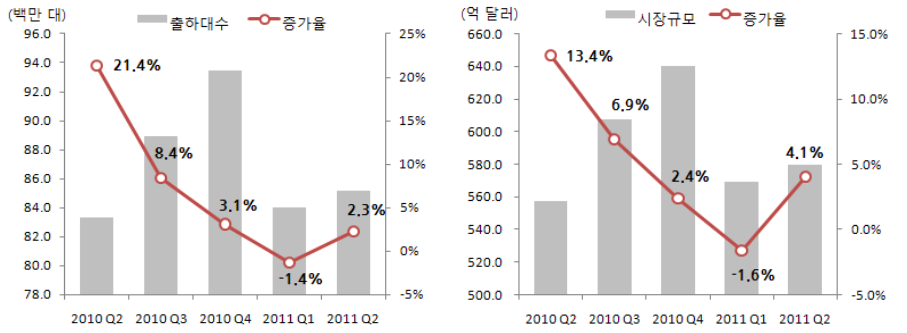
○ (금액 기준) '11년 2분기 세계 PC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한 579.8억 달러

- Desktop PC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3.8% 감소한 205.6억 달러, Mobile PC 시장은 8.9% 증가한 374.2억 달러 기록

※ Desktop PC 증가율(금액기준, %) : ('10.2Q) 6.2 → (3Q) 6.0 → (4Q) △0.6 → ('11.1Q) △4.2 → (2Q) △3.8

※ Mobile PC 증가율(금액기준, %) : ('10.2Q) 18.3 → (3Q) 7.4 → (4Q) 4.2 → ('11.1Q) △0.01 → (2Q) 8.9

세계 PC 시장 규모



자료 : Gartner, 2011.6. 2011.7.

▶ '11년 2분기 전 세계 PC 시장은 미국, 서유럽 등 선진 시장의 포화로 인한 성장 둔화와 남미, 중국 시장 등의 수요 회복으로 인한 고성장이 공존

○ 세계 PC시장에서 각각 27.1%, 19.8%를 차지하고 있는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과 미국 PC시장은 역성장

- 당초 6.1% 성장(Gartner, 2011. 6월 전망)할 것으로 예상했던 EMEA는 '11.2분기 실제 -4.8%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PC 시장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등장

- 미국은 업체 간 단가 경쟁 심화와 개인 및 기업이 구매를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 시장 감소율(전망: △2%, 실측: △5.6%)이 크게 집계

○ 반면, 중남미,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C시장은 성장을 기록

- 특히, 중남미 PC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15% 성장하여 총 920만대 출하를 기록하였고, 중국 PC 수요도 견조한 성장세 지속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3,050만대 PC 출하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

-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3월부터 연기된 PC 출하량이 2분기에 추가되어 390만대를 기록, 출하량은 5.5% 증가

2011년 2분기 지역별 PC 시장규모 및 점유율

지역	시장규모(백만 대)			시장점유율	
	'10. 2Q	'11. 2Q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10. 2Q	'11. 2Q
Asia/Pacific	27.8	30.5	9.6%	33.4%	35.8%
EMEA	24.2	23.1	△4.8%	29.1%	27.1%
United States	17.9	16.9	△5.6%	21.5%	19.8%
Latin America	8.0	9.2	15.0%	9.6%	10.7%
Japan	3.7	4.0	5.5%	4.5%	4.6%
Canada	1.7	1.7	0.3%	2.0%	2.0%

자료 : Gartner, 2011.7.

○ 하반기 세계 PC시장은 2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성장 예상

- '10년 2분기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태블릿PC 제품 간 경쟁구도가 안정화가시화되면서 PC 시장을 관망하던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 실수요자 및 실구매자로 전환되는 시기 도래

- 상반기 글로벌 경제를 뒤덮었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신흥시장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지속이 전망되면서, 하반기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PC 제품 수요와 신흥시장의 소비 확대를 기대

▶ '11년 2분기 출하대수 기준 업체별 점유율은 HP, Dell, Lenovo, Acer, Asus, Toshiba 순이며 삼성은 세계 PC 시장점유율 8위를 기록

○ 중국의 Lenovo가 상위 5대 PC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성장(22.6%)을 보이며 Acer Group을 제치고 3위 차지

※ '11년 2분기 Lenovo의 내수시장인 중국의 PC 판매가 10.9%나 증가한 것이 Lenovo 고성장의 주요인으로 꼽힘

- (Desktop PC) '11년 2분기 출하대수 기준 업체별 점유율은 HP, Dell, Lenovo, Acer, Apple 등의 순이며, Desktop PC 시장점유율 6위를 차지한 중국의 Haier가 전년 동기대비 289.2% 고성장

- (Mobile PC) '11년 2분기 출하대수 기준 업체별 점유율은 HP, Acer, Dell, Lenovo, Toshiba 등의 순이며, Mobile PC 시장점유율 7위를 차지한 삼성이 전년 동기대비 29.7%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을 나타냄

○ 국내업체의 '11년 1분기 태블릿PC 점유율은 16.2%로 Apple에 이은 세계 2위

태블릿PC 세계시장점유율 [출하량 기준]

(단위: 백만 대, %)

순위	업체	'10.3Q		4Q		'10		'11.1Q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출하량	점유율
1	Apple	4.2	95.5	7.3	75.3	14.8	84.1	4.7	69.1
2	삼성	–	–	1.5	15.5	1.5	8.5	1.1	16.2
3	모토로라	–	–	–	–	–	–	0.3	3.7
전체		4.4	100	9.7	100	17.6	100	6.8	100

자료 : SA, 2011.05

2011년 2분기 PC 업체별 세계시장점유율 [%]

< PC 업체별 시장점유율, 출하대수 기준 >

순위	업체명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시장점유율	
			'10_2Q	'11_2Q
1	HP	2.8%	17.4%	17.6%
2	Dell	3.2%	12.3%	12.6%
3	Lenovo	22.6%	10.0%	12.1%
4	Acer Group	△11.2%	12.6%	11.0%
5	Asus	2.4%	5.2%	5.2%
8	삼성전자	25.1%	3.0%	3.7%

< Desktop PC 업체별 시장점유율, 출하대수 기준>

순위	업체명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시장점유율	
			'10_2Q	'11_2Q
1	HP	△1.6%	16.8%	16.9%
2	Dell	△7.4%	13.6%	12.8%
3	Lenovo	23.0%	9.9%	12.4%
4	Acer Group	△28.9%	8.7%	6.3%
5	Apple	10.9%	2.9%	3.3%
9	삼성전자	△29.6%	1.1%	0.8%

< Mobile PC 업체별 시장점유율, 출하대수 기준 >

순위	업체명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시장점유율	
			'10_2Q	'11_2Q
1	HP	5.9%	17.7%	18.1%
2	Acer Group	△17.0%	18.0%	14.4%
3	Dell	12.8%	11.4%	12.4%
4	Lenovo	22.4%	10.1%	11.9%
5	Toshiba	△4.8%	9.4%	8.7%
7	삼성전자	29.7%	4.6%	5.8%

자료 : Gartner, 2011.7.

2) 수출 여건

▶ 태블릿PC 전용의 안드로이드 OS 허니콤을 채택한 갤럭시 탭 10.1은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태블릿PC 후발주자로서 '아이패드 생태계'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안드로이드 OS 태블릿PC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갤럭시 탭 10.1의 하드웨어 스펙은 아이패드 2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하반기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갤럭시 탭 10.1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7시간 만에 초기 물량 1,200대의 매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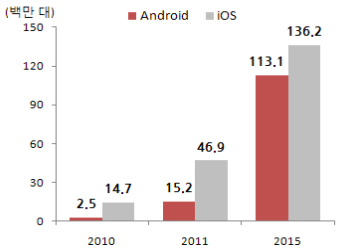
○ 6월 8일 미국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탭 10.1은 7월 28일, 美 이동통신사 Verizon을 통해 LTE용 갤럭시 탭 10.1 모델을 현지 시장에 출시

- 최대 경쟁사인 Apple이 4G 스마트폰과 신규 태블릿PC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선점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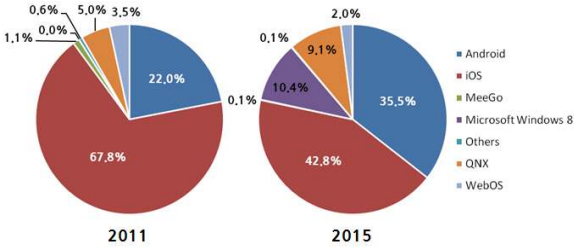
※ Apple은 내년 하반기에 4G LTE 기능이 탑재된 '아이패드 3(가칭)'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

태블릿PC 시장 전망 [판매수량 기준]

< Android vs. iOS 태블릿PC 시장 전망 >



< OS별 태블릿PC 시장 전망 >



자료 : Gartner, 2011.7.

▶ 태블릿PC와의 경쟁구도로 인한 전체 PC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PC 제조업체는 AIO(All-In-One) PC와 성능을 향상시킨 프리미엄 모바일 PC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

○ Desktop PC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AIO P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pple, 삼성전자, MSI, 한국 HP, LG전자 등이 AIO PC 제품 출시 경쟁을 시작

※ AIO 시장은 국내 기준, 지난해 5만 1,000대 규모에서 올해 7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노트북PC는 태블릿PC와 차별화하여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성능향상에 초점을 둔 프리미엄 모바일 노트북PC 시장 공략 강화

- 이동성과 배터리 지속 시간 등을 태블릿PC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성능을 더 높인 다양한 프리미엄 모바일 노트북PC의 시장공략이 본격화될 예정

※ 구글의 '크롬북(SSD장착)', 소니의 '바이오 Z 시리즈(성능, 이동성, 배터리 강화', Asus의 'Eee Pad Transformer(태블릿PC+노트북PC), Acer의 'ASPIRE ONE D257(윈도우 7 + 안드로이드 OS)' 등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모니터 수출이 정체 중인 가운데 갤럭시 탭 10.1 등의 선전에 힘입어 7개월 만에 16.1%의 큰 폭으로 증가한 6.7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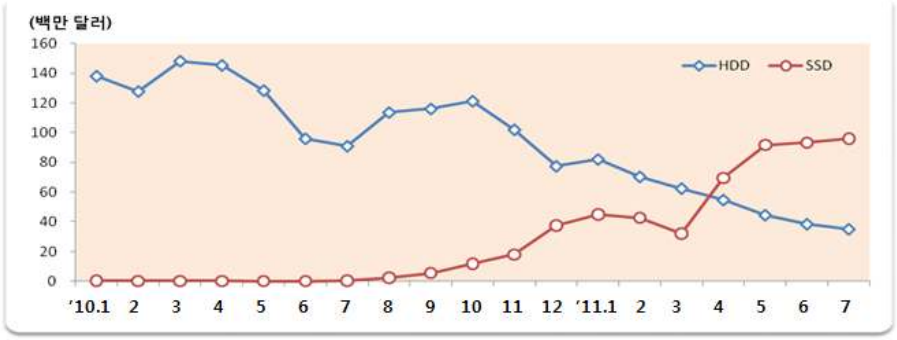
○ 미국, EU를 중심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고, 프린터(1.1억 달러, 10.3%↑)와 보조기억장치(1.4억 달러, 8.2%↑)도 전월 수준의 수출을 유지

- 7월 HDD 수출은 3,500만 달러(△61.5%)를 기록, HDD 수출을 추월하며 신규 유망품목으로 부상한 SSD는 7월 수출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 지속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1.1) 1.35→(2) 0.66→(3) 1.21→(4) 1.25 →(5) 0.71→(6) 1.41→(7) 1.70

○ 반면, 해외 생산 확대와 단가하락으로 모니터(1.5억 달러, △25.8%) 수출은 '10.7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HDD vs SSD 수출 추이



자료 : NIPA

▶ (지역별) 수출 부진이 계속되었던 수출 상위 국가인 중국(홍콩포함, 2.5억 달러, 13.5%), 미국(1.4억 달러, 58.9%), EU(1억 달러, 21.2%) 수출은 태블릿PC 수출에 힘입어 크게 증가, 인도(0.1억 달러, 31.4%↑)와 아프리카(0.4억 달러, 96.3%↑)등 신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컴퓨터 및 주변기기	5.8 (△8.8)	5.3 (△5.7)	5.9 (△7.4)	7.3 (11.0)	7.8 (18.3)	6.5 (△1.2)	5.7 (△6.3)	4.9 (△18.2)	6.4 (△6.7)	5.9 (△12.2)	5.5 (△11.8)	6.3 (△3.2)	6.7 (16.1)
보조기억장치	1.3 (△23.1)	1.5 (△2.9)	1.5 (△6.9)	1.5 (△8.5)	1.3 (△20.7)	1.3 (△9.7)	1.5 (△20.5)	1.2 (△27.7)	1.0 (△42.1)	1.3 (△28.2)	1.4 (△12.2)	1.4 (8.5)	1.4 (8.2)
프린터	1.0 (17.5)	0.9 (14.4)	1.0 (△2.9)	1.1 (21.0)	0.9 (18.0)	1.0 (8.7)	1.1 (22.1)	0.8 (△10.3)	1.1 (20.8)	1.1 (5.2)	1.0 (11.1)	1.1 (10.4)	1.1 (10.3)
모니터	2.0 (△10.2)	1.6 (△21.7)	1.6 (△27.7)	1.6 (△26.2)	1.7 (△20.3)	1.9 (△22.3)	1.5 (△21.5)	1.4 (△18.0)	1.7 (△29.3)	1.5 (△33.0)	1.5 (△27.7)	1.6 (△27.0)	1.5 (△25.8)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 컴퓨터, 스캐너 등 일부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 등을 미포함

6 가정용기기

1) 시장 환경 및 수출 여건

▶ Panasonic, 자회사인 Sanyo의 백색가전(세탁기, 냉장고) 부문을 연내 중국 Haier에 매각하기로 결정

○ Haier의 이번 Sanyo 인수는 차이나 파워가 세계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전자업체 주력 사업을 인수한 첫 번째 사례

- Haier은 Sanyo의 세탁기와 냉장고 사업 인수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Sanyo 브랜드를 사용할 방침이며, Sanyo는 이번 매각으로 일본과 동남아 가전 사업에서 완전 철수 예정

○ (Panasonic의 입장) 2009년 Sanyo 인수 후 과제였던 백색가전 사업 중복 문제 해결, Sanyo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축전지 분야에 주력

○ (Haier의 입장) Sanyo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기존 저가 이미지를 탈피, 일본을 포함한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의 교두보

○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합병을 계기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전자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분석

▶ 경쟁이 서서히 가열되는 스마트 가전 시장

○ 주요 가전 업체들, 금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가전 개발에 박차

- (삼성전자) 스마트 세탁기·냉장고 개발에 박차. 전력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작동하는 세탁기, 터치스크린과 무선인터넷을 탑재한 냉장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가전 등을 하반기 선보일 것으로 예상

- (LG전자) 지난 4월 스마트 냉장고에 이어 연내에 더욱 똑똑한 기능을 갖춘 세탁기와 오븐 등을 출시할 계획

- (Whirlpool)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할 수 있는 의류건조기를 연내에 100만 대 생산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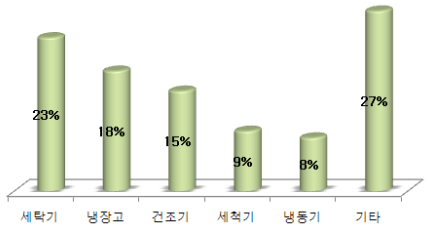
- (GE) 스마트그리드 기능의 냉장고·세탁기 등을 일부 출시한 가운데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을 통해 실내온도를 조절하는 비즈니스를 추진 중
- (밀레) 스마트폰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구동 및 조절하고 에너지 절감 기능을 갖춘 제품을 하반기에 본격 출시 예정

○ 스마트 가전 시장 30억 달러에서 연평균 49.5%씩 성장해 2015년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

스마트가전 시장 전망



스마트가전 시장 전망



주요 가전의 스마트화 비율(2015년 기준)

자료 : Zpryme(전자신문, 2011.7.15., 재인용) 재구성

2) 수출 동향

▶ 7월 가정용기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8% 줄어든 3.5억 달러로 집계

○ 많은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동월 수출의 53.3%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지역(미국 26.4%, 중동 16.4%, EU 10.5%)에 대한 수출이 각각 △31.7%, △11%, △13.7% 감소하며 수출 하락세 주도

○ 냉장고(1.8억 달러, △10.5%), 세탁기(0.5억 달러, △3.3%), 에어컨(0.2억 달러, △11.6%) 등 주요 가정용기기 모두 하락세

▶ (지역별) 인도(95.1%↑), 남미(47.3%↑), 일본(22.5%↑), 아프리카(20.1%↑)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세안(11%↑), 중국(10.3%↑), 동유럽(6.4%↑) 대양주(1.6%↑) 등에의 수출도 증가. 반면 미국(△31.7%), EU(△13.7%), 중동(△11.0%)에 대한 수출은 감소

○ 하락세가 이어지다 6월에 수출 증가로 전환했던 EU 지역 수출이 다시 크게 하락 반전

※ 對EU 수출 성장률 추이: ('11.4월) △15.2% → (5월) △20.2% → (6월) 4.4% → (7월) △13.7%

○ 가정용기기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도 지난달 하락 반전에 이어 하락의 폭 확대

※ 對미국 수출 성장률: ('11.3월) 25.8% → (4월) 16.5% → (5월) 0.2% → (6월) △14.7% → (7월) △31.7%

주요 가정용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가정용기기	3.8 (18.4)	3.4 (13.5)	3.5 (△5.8)	4.1 (20.1)	3.7 (25.0)	3.2 (7.4)	4.2 (28.6)	3.4 (0.6)	4.5 (5.4)	4.7 (4.2)	4.5 (6.1)	4.1 (14.5)	3.5 (△7.8)
냉장고	2.0 (27.4)	1.8 (22.0)	1.7 (△6.7)	2.2 (22.0)	2.0 (34.1)	1.6 (12.0)	2.3 (41.9)	1.7 (△1.3)	2.3 (11.2)	2.6 (10.2)	2.6 (10.9)	2.2 (16.3)	1.8 (△10.5)
세탁기	0.5 (△7.4)	0.5 (△12.0)	0.5 (△25.0)	0.6 (1.7)	0.6 (△5.9)	0.5 (△20.2)	0.6 (△2.6)	0.6 (△4.2)	0.7 (△8.0)	0.6 (△13.6)	0.5 (△17.0)	0.5 (△2.3)	0.5 (△3.3)
에어컨	0.2 (70.1)	0.1 (5.5)	0.1 (19.2)	0.2 (46.2)	0.2 (107.3)	0.1 (29.8)	0.3 (84.1)	0.4 (32.2)	0.5 (5.0)	0.4 (9.3)	0.4 (27.7)	0.3 (63.1)	0.2 (△11.6)

7 수출 유망 품목 : 콘덴서

1) 세계 및 국내 시장환경

▶ 세계 콘덴서 시장은 '11년 전년대비 15.5% 증가한 2조 4,124억 개, 금액으로는 8.6% 증가한 1조 6천억 엔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전망

※ 세계 콘덴서 시장 규모(억 엔, 矢野經濟研究所 2009. 11) : ('08)14,526→('09)12,917→('10)14,732→('11)16,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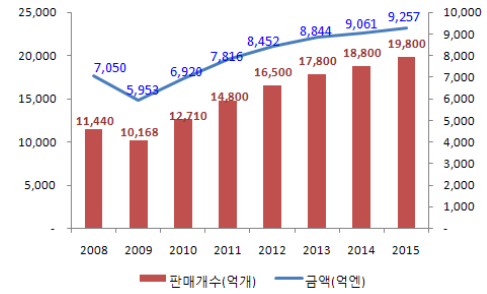
※ 세계 콘덴서 판매 규모(억 개, 矢野經濟研究所 2009. 11) : ('08)16,341→('09)17,253→('10)20,888→('11)24,124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공급과잉과 단가 하락 등의 악재로 침체에 빠져 있었던 콘덴서 시장은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들의 급성장에 힘입어 재도약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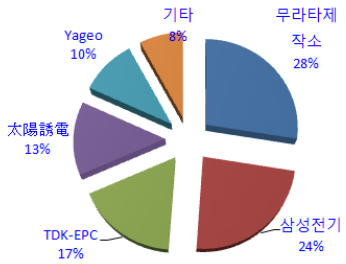
○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류를 차단·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정전용량 변경 유무에 따라 고정 콘덴서와 가변 콘덴서로 나뉨

※ 고정 콘덴서는 유전체, 전극의 종류 등에 따라 필름, 세라믹, 전해(Electrolytic), 탄탈(Tantal) 콘덴서 등이 있고 최근 수퍼 콘덴서가 부각 중

세계 세라믹 콘덴서 시장



(가) 시장 추이



(나) 점유율('10년 기준 추정)

자료 : 富士キメラ總研, 2010. 10

▶ 일반 범용 콘덴서 제품인 전해 콘덴서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라믹 콘덴서는 스마트 기기 등 세트제품에의 사용 증가에 힘입어, 2015년 이후 연간 2조 개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 IT 제품의 수요회복에 따라 '10년 전년대비 25% 증가를 기록한 세라믹 콘덴서 시장은 IT 기기의 고기능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11년에도 16.4% 증가하는 등 당분간 두자리 수의 판매증가가 예상(판매개수 기준)

※ 세라믹 콘덴서는 단층과 적층형이 있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Condenser)가 거의 90%를 차지

※ IT 제품의 다기능·소형화에 따라 MLCC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약 300~400개, 노트북PC 600개 이상, LCD TV 1천 개 등이 사용

※ 세라믹 콘덴서의 사용개수 및 비중('10년 기준, 억 개, %): 휴대폰(2,629, 20.7), PC(2,486, 19.6), TV(1,606, 12.6), 자동차(712, 5.6), DSC/DVC(572, 4.5)

- 다만, '08년 이전까지 70~80% 이상의 점유율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대만 기업의 약진에 따라, '10년 기준 삼성전기가 점유율 23.6%로 2위, 대만의 Yageo가 10.2%로 5위로 부상하는 등 일본의 점유율은 감소

※ '10년 상위 5위 업체 중 유일하게 삼성전기만 전년대비 점유율이 확대(19.7%→23.6%)

- 3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 콘덴서 업체들은 생산시설 파괴에 따른 조업 중단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음에 따라, 세트업체들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게 호기로 작용할 전망

※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등 국내 관련 업체들은 생산량 확대를 통한 점유율 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한편, '10년 세트제품의 회복에 힘입어 급격한 시장 증가를 기록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는 '11년 이후 시장성장률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며, 高壓品의 제품 비중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규모(억 엔, 富士キメラ總研 2010. 10) : '10(5,905)→'11(7,714)→'13(9,605)→'15(10,579)

※ 알루미늄 콘덴서 판매 규모(억 개, 富士キメラ總研 2010. 10) : '10(961)→'11(1,090)→'13(1,196)→'15(1,244)

- 휴대전화 용으로 세라믹 콘덴서가 대체되는 등 시장 용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탈 콘덴서는 앞으로도 정체상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

※ 탄탈 콘덴서 시장 규모(억 엔, 富士キメラ總研 2010. 10) : '10(1,417)→'11(1,516)→'13(1,544)→'15(1,556)

※ 탄탈 콘덴서 판매 규모(억 개, 富士キメラ總研 2010. 10) : '10(136)→'11(139)→'13(137)→'1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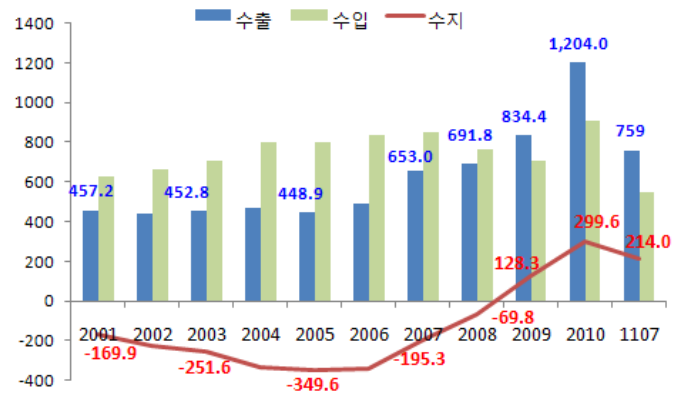
2)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콘덴서 수출은 '05년 약 4.5억 달러에서 '10년 12억 달러로 동 기간 CAGR 21.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IT 수출이 감소했던 '09년에도 무려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44.3%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대를 돌파

콘덴서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1년 7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약 10.5% 증가한 약 7억 5,900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수출 연간 10억 달러대 품목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

주요 제품별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2007	2008	2009	2010	'11 1~7	2007	2008	2009	2010	'11 1~7
콘덴서전체	653.0	691.8	834.4	1,204.0	759.2	848.3	761.6	706.1	904.4	545.2
고정식	598.0	642.7	783.6	1,108.7	700.4	784.1	708.2	662.1	842.1	515.1
가변식	7.8	3.9	4.8	4.0	3.1	51.5	41.1	31.5	47.9	21.6
※ MLCC	252.8	284.1	462.1	723.5	447.0	126.6	152.7	205.9	250.2	149.0

- 수출, 수입 모두 고정식 콘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MLCC가 고정식 콘덴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높여가고 있는 중('06년 32.5% → '11.1~7월: 58.8%)

※ 고정식 콘덴서 중 MLCC 수출 비중 추이(%) : '06(32.5) → '08(44.1) → '10(59.4) → '11.1~7(58.8)

▶ 콘덴서 수입은 '05년 약 8억 달러에서 '10년 9억 달러로 소폭 증가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08년과 '09년에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10년 다시 가파르게 회복하였고, 올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

※ 콘덴서 수입 증가율(%) : '06(4.6)→'07(1.6)→'08(△10.2)→'09(△7.3)→'10(28.1)→**'11.1~7(6.8)**

▶ 콘덴서는 '05년 약 3.5억 달러의 적자를 정점으로 적자폭이 감소하다가 '09년 약 1.3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

○ '10년에는 흑자폭을 약 3억 달러로 대폭 늘렸으며, 올 들어서는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어 7월 누적 기준 약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

○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對日 적자는 계속되고 있고, '10년의 경우 약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對日 적자액은 이 보다 많은 3.3억 달러로 핵심 부품 소재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

※ 콘덴서 對日 적자(백만 달러) : '06(△300)→'07(△331)→'08(△261)→'09(△253)→'10(△334)→**'11.1~7(△179)**

▶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전체 수출에서 약 45% 이상을 차지

○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중국에 이어 2~5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위 5위국이 전체 수출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

○ 수입은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이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 중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콘텐서 총수입에서 70% 가까이를 차지

콘텐서 수출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대비)

순위	2011.1~7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349.9	46.1	중국	564.6	46.9	중국	390.9	46.9
2	필리핀	134.4	17.7	필리핀	223.4	18.6	필리핀	136.8	16.4
3	홍콩	77.8	10.3	홍콩	130.3	10.8	홍콩	103.6	12.4
4	싱가포르	28.6	3.8	싱가포르	39.6	3.3	대만	31.0	3.7
5	대만	26.9	3.6	미국	32.7	2.7	싱가포르	21.1	2.5
소계		617.6	81.4	소계	866.2	75.9	소계	683.4	81.9
합계		759.2		합계	1,141.6		합계	8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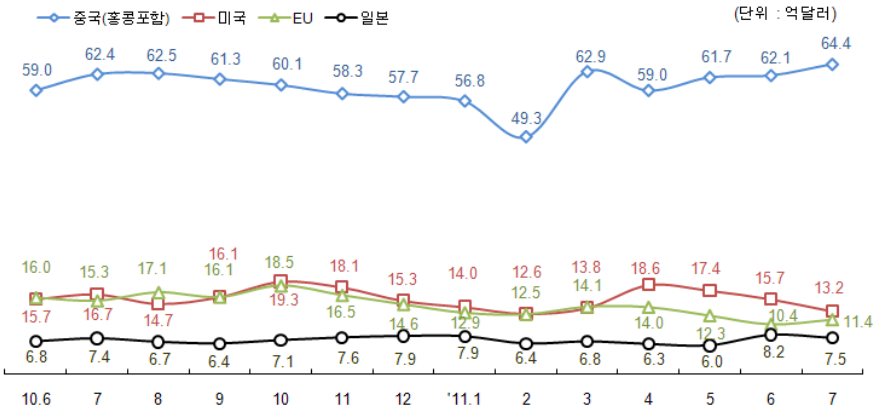
콘텐서 수입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대비)

순위	2011.1~7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일본	197.3	36.2	일본	361.5	40.0	일본	272.1	38.5
2	중국	171.7	31.5	중국	260.4	28.8	중국	214.6	30.4
3	필리핀	51.9	9.5	필리핀	96.6	10.7	필리핀	70.0	9.9
4	태국	23.8	4.4	태국	30.3	3.4	미국	24.6	3.5
5	미국	19.9	3.6	미국	28.2	3.1	태국	24.2	3.4
소계		464.6	85.2	소계	777.0	85.9	소계	605.5	85.8
합계		545.2		합계	904.4		합계	706.1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포함) : 64.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3% 증가

▶ 디스플레이 패널(19.4억 달러, △2.3%), 반도체(22.5억 달러, △8.8%) 수출은 감소했으나, 휴대폰(6.4억 달러, 51.2%↑) 및 TV부분품(1.1억 달러, 57.6%↑)은 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

○ 對중국 IT수출은 25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IT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49%에 이름

중국(홍콩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금액		62.4	62.5	61.3	60.1	58.3	57.7	56.8	49.3	62.9	59.0	61.7	62.1	64.4
(증감률)		(35.2)	(33.8)	(19.5)	(16.9)	(15.9)	(12.0)	(8.5)	(5.5)	(9.3)	(3.5)	(5.5)	(5.3)	(3.3)
	중국	48.5	49.2	47.2	47.4	45.6	44.0	43.1	38.3	47.4	44.3	47.4	48.2	50.3
		(34.4)	(34.7)	(16.9)	(19.1)	(17.0)	(6.6)	(2.4)	(4.9)	(3.5)	(△2.2)	(3.2)	(5.1)	(3.8)
	홍콩	13.9	13.4	14.1	12.7	12.8	13.7	13.7	11.0	15.5	14.6	14.3	13.9	14.1
		(38.0)	(30.6)	(28.8)	(9.4)	(12.1)	(33.6)	(33.1)	(7.9)	(32.0)	(25.5)	(13.9)	(5.7)	(1.6)

2 미국 : 13.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1.1% 감소

▶ 최신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어 휴대폰 수출((5.9억 달러, △26.5%)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수출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또한, 반도체(2.2억 달러, △34.6%), 패널(0.2억 달러, △50.5%), TV부분품(0.1억 달러, △17.1%) 등 부(분)품 수출도 부진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금액	16.7	14.7	16.1	19.3	18.1	15.3	14.0	12.6	13.8	18.6	17.4	15.7	13.2
(증감률)	(15.0)	(12.9)	(21.2)	(42.2)	(33.0)	(24.2)	(15.6)	(△4.3)	(△3.3)	(26.0)	(17.4)	(△0.0)	(△21.1)

3 EU : 11.4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5.6% 감소

▶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폰(1.9억 달러, △11.5%)을 비롯해, 반도체(1.8억 달러, △47.0%), 패널(2.7억 달러, △44.6%), TV부분품(1.7억 달러, △3.2%)등의 부진으로 9개월 연속 감소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금액	15.3	17.1	16.1	18.5	16.5	14.6	12.9	12.5	14.1	14.0	12.3	10.4	11.4
(증감률)	(7.5)	(30.2)	(3.8)	(3.2)	(△2.7)	(△3.1)	(△2.3)	(△8.9)	(△9.6)	(△9.4)	(△23.2)	(△34.7)	(△25.6)

4 일본 : 7.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

▶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1.7억 달러, 245.6%↑) 수출이 對일본 IT수출을 주도

○ 반면, 반도체(2.8억 달러, △22.0%), 패널(0.3억 달러, △74.2%) 등 수출은 일본 지진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금액	7.4	6.7	6.4	7.1	7.6	7.9	7.9	6.4	6.8	6.3	6.0	8.2	7.5
(증감률)	(23.7)	(12.4)	(△5.0)	(10.6)	(19.0)	(32.5)	(53.1)	(22.2)	(10.8)	(7.7)	(△4.9)	(20.0)	(1.2)

5 기타 국가

▶ 신흥 국가 중 동유럽(6.5억 달러, △30.2%)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증가

○ 중남미(7.9억 달러, 1.7%↑), 대양주(0.9억 달러, 22.2%↑), 중동(3.3억 달러, 8.7%↑) 등 신흥시장 수출은 증가세 지속

3. 수입 및 수지 동향

▶ 6월 IT수입은 가정용기기와 네트워크 장비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한 66.8억 달러

○ 최대 IT수입 품목인 전자부품(39.8억 달러, △0.8%)은 일본 지진의 영향으로 감소

○ 컴퓨터 및 주변기기(7.7억 달러, 3.1%↑), 휴대폰(2.8억 달러, 0.8%↑)은 증가세가 지속

- 냉장고, 에어컨 등 계절상품 수입 증가로 가정용기기는 1.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하였고, 국내 통신망 투자확대로 네트워크장비(1.9억 달러) 수입도 14.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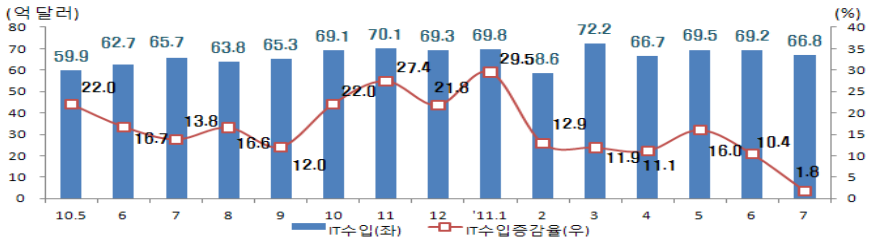
○ 중국(홍콩포함, 22.4억 달러, 2.8%↑)과 미국(6.9억 달러, 6.3%↑) 수입은 증가했으나, 일본(10.5억 달러, △15.3%), 싱가포르(4.0억 달러, △5.2%), 대만(8.5억 달러, △2.9%) 등 수입은 감소세 전환

'11.7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39.8	(△0.8)	7.7	(3.1)	10.3	(12.4)	66.8	(1.8)
중국(홍콩포함)	11.1	(△6.0)	4.9	(9.0)	2.4	(12.2)	22.4	(2.8)
일본	7.3	(△19.0)	0.4	(△13.2)	2.0	(△3.3)	10.5	(△15.3)
미국	4.2	(29.5)	0.4	(△45.8)	1.8	(△5.0)	6.9	(6.3)
대만	7.0	(△3.1)	0.2	(57.2)	0.1	(1.4)	8.5	(△2.9)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6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산업 흑자 창출에 크게 기여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전체	50.0	12.1	44.1	63.4	25.9	40.9	26.4	21.6	25.8	44.4	21.1	28.2	72.2
IT산업	69.9	70.1	69.2	71.8	65.9	61.1	58.5	53.0	62.6	66.3	64.1	63.3	64.4

○ **(품목별)** 휴대폰(18.9억 달러), 반도체(12.2억 달러), 패널(19.6억 달러) 및 TV(8.4억 달러) 등 흑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휴대폰	16.1	15.9	16.7	21.7	21.6	17.8	17.9	15.5	15.7	19.1	19.7	17.9	18.9
반도체	17.9	20.8	20.6	16.5	13.5	14.7	12.3	12.3	17.1	15.5	14.3	16.5	12.2
패 널	26.1	26.2	22.8	23.0	21.4	21.0	20.2	17.9	21.5	20.8	21.4	20.1	19.6
TV	6.9	6.8	6.4	6.1	5.5	5.1	6.1	5.8	7.0	6.1	5.9	6.3	8.4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은 4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은 6.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7	8	9	10	11	12	'11.1	2	3	4	5	6	7
중국(홍콩)	40.6	40.2	37.0	33.9	31.3	33.3	29.7	27.7	34.6	34.0	35.0	36.2	42.1
EU	10.9	12.8	11.9	13.9	11.6	9.6	8.1	8.2	8.1	8.5	6.8	4.2	6.6
미국	10.2	8.3	9.8	12.5	11.4	7.9	7.8	7.3	7.4	12.4	10.0	9.1	6.3
일본	△5.0	△3.9	△4.3	△2.8	△2.5	△2.8	△1.8	△2.6	△3.8	△3.4	△3.6	△2.3	△3.0

4. 2011년 7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8월	289.5	105.9	−7.7	274.1	54.7	−13.0	15.4	51.2
9월	339.2	118.3	−2.5	297.6	58.3	−13.4	41.7	60.0
10월	339.7	120.3	0.6	304.0	56.7	−10.8	35.7	63.6
11월	339.9	117.2	36.4	295.3	55.0	17.9	44.6	62.2
12월	360.1	112.9	73.3	329.2	56.9	35.0	30.9	55.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3,262.7	904.8	4.8	3,023.0	472.7	12.9	239.7	432.2
1/4	1,310.1	374.7	8.9	1,236.4	200.6	17.8	73.7	174.1
2/4	1,438.2	398.9	3.9	1,344.4	205.3	12.4	93.7	193.7
상반기	2,748.2	773.6	6.3	2,580.8	405.8	15.0	167.4	367.8
1월	444.8	128.2	16.3	418.4	69.8	29.5	26.4	58.5
2월	384.8	111.6	4.7	363.2	58.6	12.9	21.6	53.0
3월	480.5	134.8	6.0	454.7	72.2	11.9	25.8	62.6
4월	486.0	132.9	5.5	441.5	66.7	11.1	44.4	66.3
5월	474.6	133.6	4.5	453.5	69.5	16.0	21.1	64.1
6월	477.6	132.4	1.7	449.4	69.2	10.4	28.2	63.3
7월	**514.5**	**131.2**	**−3.2**	**442.2**	**66.8**	**1.8**	**72.2**	**64.4**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3,120	-3.2	90,483	4.8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1,498	-5.9	79,546	2.2	87.9
○전자부품	91,302	45.6	59.3	7,200	-14.7	51,043	-1.1	56.4
- 반도체	50,707	63.4	32.9	4,044	-12.4	28,795	1.9	31.8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1,817	-31.1	14,771	-9.9	16.3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516	-21.2	18,011	-7.4	19.9
- 전자관	279	-11.4	0.2	16	-35.8	129	-32.1	0.1
- 수동부품	1,599	39.0	1.0	140	-7.1	949	2.4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402	3.8	2,651	10.0	2.9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10	46.7	59	32.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669	16.1	4,146	-6.3	4.6
- 컴퓨터	1,009	114.5	0.7	150	162.0	576	59.6	0.6
- 주변기기	5,418	2.9	3.5	413	-5.6	2,839	-14.3	3.1
· HDD	1,405	2.9	0.9	35	-61.5	388	-55.6	0.4
· 프린터	1,142	20.2	0.7	110	10.3	726	9.8	0.8
· 모니터	2,307	-7.9	1.5	149	-25.8	1,077	-26.5	1.2
-컴퓨터부품	1,091	1.8	0.7	91	30.0	620	-4.3	0.7
-SW 및 콘텐츠	191	10.4	0.1	15	29.2	112	7.6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410	13.5	17,134	14.9	18.9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391	13.7	16,995	14.9	18.8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78	-26.2	618	-7.8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313	15.8	16,378	15.9	18.1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176	15.1	15,673	17.6	17.3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19	-5.9	139	17.0	0.2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1,108	13.8	6,321	3.3	7.0
- 영상기기	8,025	39.9	5.2	900	19.5	4,971	5.8	5.5
·TV	7,452	42.6	4.8	857	22.2	4,674	6.5	5.2
LCD TV	649	15.6	0.4	89	48.6	478	28.5	0.5
TV 부분품	6,460	49.4	4.2	744	21.6	3,993	4.7	4.4
- 음향기기	1,082	7.7	0.7	108	5.8	656	2.4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100	-15.3	694	-10.6	0.8
· 셋탑박스	762	12.2	0.5	39	-38.1	319	-26.0	0.4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11	6.8	902	14.0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622	21.5	10,937	28.4	12.1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429	15.5	2,961	41.2	3.3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350	-7.8	2,895	6.9	3.2
· 냉장고	2,318	29.9	1.5	178	-10.5	1,538	10.5	1.7
· 세탁기	685	5.8	0.4	49	-3.3	388	-7.5	0.4
· 에어컨	286	11.9	0.2	21	-11.6	264	23.7	0.3
· 전자레인지	106	-6.8	0.1	5	-37.3	53	-22.2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37	-3.7	285	15.5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806	47.6	4,796	38.4	5.3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21	23.7	2,808	20.2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6,683	1.8	47,267	12.9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5,655	0.1	40,513	12.4	85.7
○전자부품	44,363	18.8	58.7	3,985	-0.8	26,783	8.4	56.7
- 반도체	31,137	17.0	41.2	2,826	-0.1	18,787	8.6	39.7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570	22.6	4,067	37.6	8.6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555	-4.1	3,850	6.7	8.1
- 전자관	118	-24.4	0.2	7	1.5	50	-34.4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52	-3.5	1,041	6.8	2.2
- 접속부품	3,685	26.0	4.9	336	0.4	2,264	7.9	4.8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25	119.8	125	71.4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775	3.1	5,618	7.4	11.9
- 컴퓨터	3,078	57.4	4.1	291	11.1	1,994	17.5	4.2
- 주변기기	3,429	19.8	4.5	294	3.3	2,154	11.4	4.6
· HDD	770	19.9	1.0	50	-12.3	465	2.4	1.0
· 프린터	1,066	23.8	1.4	103	16.9	725	21.0	1.5
· 모니터	1,002	17.2	1.3	76	-13.9	549	-2.1	1.2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36	-11.8	1,130	-11.4	2.4
-SW 및 콘텐츠	592	5.5	0.8	53	6.2	339	4.7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542	1.3	5,542	57.2	11.7
- 통신기기	6,756	25.0	8.9	531	1.2	5,475	58.6	11.6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135	-4.4	1,473	85.6	3.1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396	3.3	4,002	50.5	8.5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285	0.8	3,208	53.9	6.8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11	4.6	67	-6.5	0.1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27	-6.8	1,635	-5.9	3.5
- 영상기기	940	9.1	1.2	65	-8.5	515	-7.7	1.1
·TV	198	1.8	0.3	12	-21.5	119	-5.2	0.3
LCD TV	17	27.8	0.0	3	291.5	39	317.3	0.1
TV 부분품	152	1.8	0.2	9	-31.8	77	-22.9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16	-6.9	815	1.7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46	-4.1	306	-19.3	0.6
· 셋탑박스	108	298.8	0.1	13	51.4	81	19.1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27	21.4	935	7.6	2.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1,028	12.4	6,754	16.6	14.3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686	9.9	4,555	16.9	9.6
○가정용 기기	899	19.6	1.2	121	52.0	674	34.1	1.4
· 냉장고	83	19.5	0.1	9	-6.8	45	0.8	0.1
· 세탁기	71	32.7	0.1	5	-16.5	34	-20.9	0.1
· 에어컨	32	14.2	0.0	20	363.7	72	225.9	0.2
· 전자레인지	17	110.6	0.0	2	6.7	15	66.8	0.0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7	-20.4	59	-32.4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14	5.6	1,467	12.1	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02	-0.7	759	21.3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120	6,683	6,437	43,216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1,498	5,655	5,843	39,034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7,200	3,985	3,215	24,260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044	2,826	1,218	10,008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1,817	570	1,247	10,704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516	555	1,961	14,161
- 전자관	279	118	161	16	7	9	79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40	152	-12	-92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02	336	66	387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10	25	-15	-65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669	775	-105	-1,471
- 컴퓨터	1,009	3,078	-2,069	150	291	-141	-1,419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13	294	119	685
· HDD	1,405	770	635	35	50	-14	-77
· 프린터	1,142	1,066	76	110	103	6	1
· 모니터	2,307	1,002	1,304	149	76	73	529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91	136	-45	-510
-SW 및 콘텐츠	191	592	-401	15	53	-38	-227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410	542	1,868	11,592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391	531	1,860	11,520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78	135	-57	-855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313	396	1,917	12,375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176	285	1,891	12,465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19	11	8	72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1,108	227	880	4,686
- 영상기기	8,025	940	7,085	900	65	835	4,456
·TV	7,452	198	7,254	857	12	844	4,556
LCD TV	649	17	631	89	3	86	439
TV 부분품	6,460	152	6,308	744	9	736	3,916
- 음향기기	1,082	1,368	-286	108	116	-8	-159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100	46	54	388
· 셋탑박스	762	108	654	39	13	26	238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11	127	-16	-3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622	1,028	594	4,182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429	686	-257	-1,594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350	121	229	2,221
· 냉장고	2,318	83	2,235	178	9	169	1,493
· 세탁기	685	71	614	49	5	44	354
· 에어컨	286	32	254	21	20	0	192
· 전자레인지	106	17	89	5	2	4	38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37	7	30	226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806	214	592	3,32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21	102	319	2,049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3,120	-3.2	90,483	4.8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9,108	2.6	60,280	8.1	66.6
- 중 국	54,319	38.1	35.3	5,035	3.8	31,895	2.9	35.2
- 홍 콩	15,010	39.0	9.8	1,408	1.6	9,716	16.4	10.7
- 일 본	7,851	18.7	5.1	753	1.2	4,893	14.4	5.4
- ASEAN	13,809	29.4	9.0	1,166	-2.5	8,287	8.0	9.2
· 싱가폴	5,643	20.2	3.7	432	-9.6	3,286	4.4	3.6
· 인 니	952	8.6	0.6	59	-26.1	521	-10.9	0.6
· 말 련	2,415	23.1	1.6	181	-20.7	1,226	-14.5	1.4
· 태 국	1,136	14.5	0.7	104	-7.1	723	8.2	0.8
- 대 만	6,420	45.7	4.2	531	-1.9	4,307	22.2	4.8
- 인 도	1,537	16.4	1.0	185	35.3	981	17.7	1.1
○ 북미	19,588	16.8	12.7	1,422	-18.5	11,187	4.5	12.4
- 미 국	18,508	15.9	12.0	1,316	-21.1	10,529	3.7	11.6
- 캐나다	879	39.3	0.6	91	52.7	552	30.4	0.6
○ 유럽	21,132	12.6	13.7	1,321	-23.6	10,061	-14.1	11.1
- EU	18,787	10.3	12.2	1,140	-25.6	8,753	-16.8	9.7
· 영 국	1,496	-13.0	1.0	90	-19.8	690	-15.6	0.8
· 독 일	3,302	13.5	2.1	217	-18.0	1,528	-22.0	1.7
· 프랑스	931	-23.9	0.6	49	-14.5	458	4.5	0.5
· 이탈리아	755	28.7	0.5	47	-8.2	413	14.9	0.5
- 러시아	1,535	43.2	1.0	118	-11.3	745	-2.7	0.8
○ 중동	3,876	28.6	2.5	330	8.7	2,741	28.5	3.0
- 사우디	429	6.7	0.3	42	7.5	401	65.7	0.4
- UAE	1,269	45.4	0.8	99	7.7	905	45.1	1.0
○ 중남미	8,420	13.3	5.5	790	1.7	5,195	0.7	5.7
- 브라질	2,429	21.0	1.6	323	31.2	1,790	15.7	2.0
- 멕시코	5,188	5.9	3.4	376	-19.5	2,827	-9.1	3.1
- 칠 레	195	5.1	0.1	20	62.2	140	10.5	0.2
○ 대양주	1,020	2.8	0.7	94	22.2	628	20.3	0.7
- 호 주	944	4.2	0.6	84	17.2	567	18.0	0.6
○ 아프리카	635	11.6	0.4	53	15.3	378	8.1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661	5.5	35,410	3.8	39.1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7월 당월		1~7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6,683	1.8	47,267	12.9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370	1.6	37,984	13.2	80.4
- 중 국	26,311	32.4	34.8	2,184	4.2	17,078	19.0	36.1
- 홍 콩	950	32.9	1.3	54	-32.8	610	22.2	1.3
- 일 본	11,952	15.7	15.8	1,052	-15.3	6,942	2.7	14.7
- ASEAN	11,858	4.3	15.7	950	-3.9	7,151	7.2	15.1
· 싱가폴	5,255	-11.1	6.9	399	-5.2	3,177	10.4	6.7
· 인 니	415	40.5	0.5	39	16.1	273	14.2	0.6
· 말 련	2,689	18.8	3.6	232	-5.2	1,631	5.8	3.5
· 태 국	1,556	19.8	2.1	132	2.2	979	9.9	2.1
- 대 만	9,698	41.7	12.8	850	-2.9	5,893	12.3	12.5
- 인 도	43	14.4	0.1	5	70.1	27	9.8	0.1
○ 북미	8,068	17.7	10.7	714	6.0	4,706	4.1	10.0
- 미 국	7,660	19.1	10.1	685	6.3	4,493	4.8	9.5
- 캐나다	234	4.5	0.3	16	-0.0	119	-6.5	0.3
○ 유럽	5,733	14.0	7.6	523	-1.5	3,977	23.1	8.4
- EU	5,134	12.9	6.8	483	9.0	3,716	30.7	7.9
· 영 국	391	10.6	0.5	40	14.4	257	15.0	0.5
· 독 일	2,341	20.8	3.1	204	8.2	1,465	12.8	3.1
· 프랑스	660	-9.8	0.9	64	4.2	403	9.9	0.9
· 이탈리아	260	15.7	0.3	24	-3.4	157	4.1	0.3
- 러시아	89	128.7	0.1	2	-95.0	8	-89.0	0.0
○ 중동	434	-12.4	0.6	30	-7.2	205	-14.4	0.4
- 사우디	1	449.8	0.0	0	240.9	1	-50.4	0.0
- UAE	4	-37.1	0.0	1	914.9	7	127.9	0.0
○ 중남미	441	21.5	0.6	35	3.4	310	30.0	0.7
- 브라질	16	-6.8	0.0	2	149.4	13	55.3	0.0
- 멕시코	420	22.1	0.6	32	-1.1	293	27.7	0.6
- 칠 레	2	236.2	0.0	0	-30.1	0	110.7	0.0
○ 대양주	107	16.3	0.1	9	8.0	76	31.7	0.2
- 호 주	95	15.7	0.1	8	6.4	68	31.1	0.1
○ 아프리카	17	58.0	0.0	2	21.9	7	-47.2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192	2.8	17,126	18.5	36.2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7월 당월			7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120	6,683	6,437	43,216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108	5,370	3,738	22,296
- 중 국	39,344	19,868	19,476	5,035	2,184	2,851	14,816
- 홍 콩	10,802	715	10,087	1,408	54	1,355	9,106
- 일 본	6,617	10,333	-3,716	753	1,052	-300	-2,049
- ASEAN	10,673	11,369	-696	1,166	950	216	1,136
· 싱가폴	4,693	5,912	-1,219	432	399	33	109
· 인 니	876	295	581	59	39	20	248
· 말 련	1,963	2,263	-300	181	232	-51	-405
· 태 국	992	1,299	-306	104	132	-28	-256
- 대 만	4,407	6,845	-2,438	531	850	-319	-1,586
- 인 도	1,320	38	1,283	185	5	181	954
○ 북미	16,764	6,855	9,909	1,422	714	707	6,481
- 미 국	15,973	6,433	9,540	1,316	685	631	6,036
- 캐나다	631	224	407	91	16	75	433
○ 유럽	18,759	5,029	13,730	1,321	523	799	6,084
- EU	17,037	4,548	12,489	1,140	483	657	5,037
· 영 국	1,718	353	1,365	90	40	50	433
· 독 일	2,910	1,938	972	217	204	13	63
· 프랑스	1,224	731	492	49	64	-14	56
· 이탈리아	587	225	362	47	24	23	256
- 러시아	1,071	39	1,033	118	2	116	736
○ 중동	3,013	495	2,518	330	30	300	2,536
- 사우디	402	0	402	42	0	41	401
- UAE	873	7	866	99	1	98	899
○ 중남미	7,435	363	7,072	790	35	755	4,885
- 브라질	2,008	17	1,991	323	2	321	1,777
- 멕시코	4,897	344	4,553	376	32	344	2,534
- 칠 레	185	0	185	20	0	20	139
○ 대양주	992	92	900	94	9	85	552
- 호 주	906	83	823	84	8	76	500
○ 아프리카	569	11	558	53	2	51	371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661	2,192	3,469	18,283